

류현경 “김향기 찐팬, 항상 웃게 하고 싶어…소름돋는 배우”

영화 ‘아이’ 6개월 아들든 초보맘 ‘영채’ 역

촬영 두세 달 전부터 연습하며 감정 쌓아

“김향기·염혜란, 캐릭터 완벽 몰입해 도움”

‘신기전’ 작품 이후 평생 연기자의 길 걸심

“영화를 보고 혼자서 아닌 함께한다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화 ‘아이’에서 초보 엄마이자 싱글맘으로 분한 배우 류현경이 상처 가득한 세상에서 함께 하는 의미를 전한다.

류현경은 지난 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본을 보면서, 영화를 준비하고 찍으면서 그런 감정이 들었다”며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같이 할 수 있음에 행복했다. 관객들도 혼자서 아니라 함께한다는 마음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강한 생활력으로 하루하루 살아오며 아동학과 졸업을 앞둔 보호종료아동 ‘아영’이 생후 6개월 된 아들 ‘혁’이를 홀로 키우는 ‘영채’의 베이비시터가 되면서 시작되는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다.

류현경은 극 중 생후 6개월 된 아들 혁이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이자 초보 엄마 영채로 열연했다. 영채는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영과 관계가 틀어지며 다시 혁이와 둘만 남게 된 영채는 고단한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영채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러웠죠. 어리지만 삶에 굴복이 있는 아영을 만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데, 텅텅하게 둘의 가족이 되

는 과정을 바라봐주는 지점들이 굉장히 좋았죠.”

“시나리오에 영채의 섬세함 잘 표현…욕 맛깔나게 연습”

류현경은 영채의 섬세한 감정선을 잘 표현해내고 싶었고, 촬영하기 전인 두세 달 전부터 연습과 리허설을 거듭했다.

그는 “촬영 전부터 그 감정들이 쌓여서 영화에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다”며 “보통 감정선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불안한데, 그 과정이 있어 든든했다. 극 중 영채처럼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있는 것 같았고, 감정선이 많았지만 불안하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김향기 배우와 염혜란 선배님은 극 중 캐릭터로 완벽했고, 도움을 받아 제가 영채를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다”며 “작품을 찍으면서 정말 잘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모이는 순간이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 느껴졌다. 그런 감정들이 영화에 표현된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미소 지었다.

영채의 현실은 고단하지만, 어떻게 그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초반에 영채 캐릭터를 고민하며 쓴 메모에는 ‘꼬불꼬불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류현경은 “영채는 혼자 막막함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마음을 도려내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행동이 웃기게

표현될 수도 있고 쓸쓸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자체에 영채의 섬세함이 잘 그려져 있었어요. 힘든 삶을 살지만, 슬픔과 연민에 젖어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집중했죠. 그래서 더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이 류현경 자신과 닮아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속으로 많은 마음을 품고 힘들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고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넘기고 싶어 하는 모습이 저와 닮아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영화 제목인 ‘아이’는 어린 혁이를 지칭하는 동시에 영채와 아영을 뜻한다. 이들은 어른이지만, 세상을 홀로 버티고 있는 아이와 같다.류현경은 “영채는 매일매일 상실해가는 아이”라며 “소중한 마음의 상실, 관계의 상실, 사람의 상실 등 영채의 불안에서 비롯된 다양한 상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극 중 욕을 맛깔나게 하는 류현경은 특훈했다며 웃었다. “시사회가 끝나고 부모님 반응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첫마디가 욕을 잘한다는 말이었어요. 원래 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말했죠. 욕을 할 때 음역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욕이 차지게 들릴까, 소리 내보며 연구하고 계속 노력했죠.”

“휴식할 땐 덕질로 힐링…김향기·방탄소년단 팬” 웃음

아영을 연기한 김향기의 ‘찐팬’임도 내세웠다. 류현경은 “현장에서 김향기 배우를 항상 웃게 하고 싶었다”며 “향기의 웃음이 제 마음까지 환하게 할 정도로 너무 예뻐서 그 웃는 모습을 항상 보고 싶었다”고 환하게 웃었다.

“향기랑 즐겁게 촬영했어요. 협함을 좋아한다고 해서 둘이 얘기도 많이 했죠. 언젠가 완곡을 해보자고 했어요. 막상 촬영하러니 떨리고



긴장했는데, 그 순간 향기는 정말 마법처럼 아영이가 돼 있더라고요. 눈빛이나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영이어서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제가 몰입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훌륭한 배우죠.”

극 중 영채를 구박하면서 살뜰히 챙겨주는 버팀목 ‘미자’ 역의 염혜란에게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선배님은 대본 연습할 때 항상 노트를 가져와서 꼭 기록하세요. 대사 의미와 그 맛을 살리기 위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본받을 점이 많았죠.”

작품을 끝내고 휴식을 취할 때는 이른바 ‘덕질’을 한다며 속속스러워했다. 류현경은 “영화 덕후이자, 김향기 배우 덕후여서 덕질을 하다 보면 힐링이 된다”며 “영화도 한 작품을 여러 번 보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최근 빠져있는 덕질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꼽으며 부끄러워했다. 류현경은 “제가 BTS에 늦게를 했다.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볼 게 너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웃었다.

이어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월드스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다. BTS의 성실성에 정말 감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드라마 ‘곰탕’에서 아역으로 데뷔한 류현경은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역할로는 악역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샌드라 오가 출연한 ‘킬링 이브’를 봤는데, 색다른 느낌의 킬러가 나왔다”며 “결이 다른 그런 킬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역 시절에는 현장에 가는 게 재미있었을 뿐이었지만, 영화 ‘신기전’(2008) 촬영을 하며 평생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평생 연기를 한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는 어느 작품이든 누가 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작품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평생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청하, 첫 정규앨범 ‘케렌시아’에 백예린·창모 참여

고액기부자 모임 가입…1억2000만원 기부



가수 청하의 첫 정규앨범이 싱어송라이터 백예린과 래퍼 창모가 참여한다. 8일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청하가 오는 15일 발매 예정인 첫 번째 정규앨범 ‘케렌시아(Querencia)’에 백예린·구름이 선물한 몽환적인 분위기의 ‘올 나이트

롱(All Night Long)’이 실린다.

이와 함께 창모가 피쳐링한 ‘플레이’를 비롯 폴드가 참여한 ‘레몬’, 아르마딜로가 작업한 ‘솔직히 지친다’, 빈센조 등과 협업한 ‘컴 앤 고즈(Comes N Goes)’ 등도 포함된다.

타이틀곡은 ‘바이시클(Bicycle)’이다. 강렬한 기타의 도입부와 함께 전개되는 R&B 팝·트랩 사운드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의 실렘과 벅찬 에너지를 표현했다. 청하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한편, 청하는 이날 고액기부자 모임에 가입했다. 조목우산어린이재단의 그린노블클럽의 250번째 후원자가 됐다. 그린노블클럽은 5년간 누적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하는 지난 2019년 환아 치료비 5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작년에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아동, 환아 치료비, 연말 산타원정대 등을 위해 꾸준히 기부했다. 현재까지 기부금액이 총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넷플릭스 아시아 성장, 한국 드라마가 견인”

‘스위트홈’, 넷플릭스 4분기 실적 발표의 성공 사례

미국 CNN이 넷플릭스의 아시아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가 있다고 진단했다.

8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미국 CNN 비즈니스는 지난 4일 넷플릭스의 아시아 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한국 드라마를 언급했다.

CNN 비즈니스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킹덤’을 비롯한 K-콘텐츠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성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K-콘텐츠의 아시아 지역 시청률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넷플릭스가 아시아 지역 콘텐츠에 약 20억달러(2조2300억원)를 투자했으며,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

아 지역의 투자를 2배로 증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NN에 출연한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 동남아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콘텐츠 총괄 VP는 “현지 콘텐츠가 아시아에서의 사업 성장에 중요 요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인 ‘킹덤’, ‘스위트홈’ 등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한 ‘스위트홈’은 작년 12월 공개 후 4주 동안 세계 2200만 유료 구독자가 시청하며 넷플릭스 4분기 실적 발표의 성공 사례로 언급될 만큼 세계적인 콘텐츠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승리호’ 조성희 감독 “극장 개봉 계획 없어…속편은 나도 궁금”

“넷플릭스 영화 전세계 인기 순위, 1위 예상 못해”

조성희 감독이 ‘승리호’가 넷플릭스 영화 순위 정상에 오른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조 감독은 8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승리호’가 공개 후 넷플릭스 영화 전세계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는데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까지 즉각적인 반응이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 공개에 대해서는 “극장이든 컴퓨터든 TV든 어떤 식으로든 관객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 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끼리는 ‘고생 많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서로 다독이는 그런 분위기”라며 “할리우드 SF 영화에 뒤지지 않게 봐주시길 같이 좋다고 웃었다.”

추후 극장 개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극장 상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 나도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생각이다”고 했다.

속편 계획과 관련해서는 “나도 궁금하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편이나, 또는 ‘승리호’가 아니더라도 우주 배경의 SF 영화들이 관객 입장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승리호’는 2009년을 배경으로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모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 한국 최초 SF 영화다. 지난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틀째에도 넷플릭스의 인기 영화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조병규, 유재석 KBS 새 예능 출연 확정

‘유재석 신 예능’, 올 상반기 첫 방송될 예정

배우 조병규가 유재석의 KBS 새 예능 출연을 확정지었다.

KBS 2TV ‘유재석 신(新) 예능’은 스타의 낯선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한 첫 보금자리로 돌아가 그곳에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청춘들의 꿈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조병규는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거쳐 최근 OCN ‘경이로운 소문’의 타이틀롤

‘소문’역을 맡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의 예능감을 일찌감치 알아본 유재석은 조병규를 탐나는 ‘예능 인재’로 꼽은 바 있다. ‘유재석 신 예능’ 측은 “조병규가 프로그램 콘셉트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출연을 결정했을 정도로 적극적”이라며 “두 대세가 어떤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재석 신 예능’은 올 상반기 첫 방송될 예정이다.